

보도설명자료 (’17.11.0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원전 수출·육성 내년 예산 올해 보다 35% 줄어”

(’17.11.06. 뉴시스, 뉴스핌, 헤럴드경제)

1. 기사내용

- 원전산업 수출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35% 감액
(뉴시스, 뉴스핌, 헤럴드경제)
-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
계속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 되는 예산 편성(뉴스핌, 헤럴드경제)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설명

- 기사에 언급된 중기사업계획서(대비 35%감액)는 정부 내에서 협의가
완료되지 않은 계획으로, 연도별 예산증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
‘18년 예산과 ’17년 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
-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과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은 ’17년
대비 ’18년에 약 9.8% 감액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며,
 - *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: [’17년] 686억원 → [’18년(안)] 621억원
 - *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: [’17년] 29억원 → [’18년(안)] 24억원
- 同 예산안은 연말까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
예정임

-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
원자력 기술수준이 향상되어, 정부 지원은 감소하고 한수원의
R&D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,

(백만원)

구 분	’13	’14	’15	’16	’17	’18 (안)
(산업부) 원자력핵심기술개발	96,287	92,329	85,761	73,568	68,625	62,137
(한수원) 자체 R&D	136,544	135,400	105,344	202,085	172,296	-
계	232,831	227,729	191,105	275,653	240,921	

-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의 경우, 한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
수출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된 바 있음

※ 관련 문의 : 원전산업정책과 정종영 과 장(044-203-5320)
김현동 사무관(044-203-5315)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